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21면	“스포츠로 하나 된 도민·행복한 추억 선물 감사합니다”	1
강원도민일보	20면	"롤모델 황선우...그냥 좋다"	2
江原日報	07면	‘강원형 클러스터’ 조성 공동 대응 다짐	3
江原日報	01면	"강원자치도 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최적지"	4
江原日報	02면	"디지털 의료 거점 원주 AI 반도체산업 성장 잠재력 높아"	5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김영숙 (왼쪽) 횡성군의장·한창수 도의회부의장	5
江原日報	21면	“울산 태화강 친환경 생태공간 벤치마킹”	6
강원신문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 현지시찰에 나서	7
江原日報	16면	미수복김화군민회 망향제	8
강원도민일보	17면	철원 미수복 김화군민회 망향제	8
강원도민일보	20면	소양강배 춘천파크골프대회 선수 300여명 친목·화합 다져	8
강원도민일보	22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9
江原日報	21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9
강원타임즈	온라인	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 10월25일 개최	10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교권보호 열쇠 학부모에 있다	11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김용복 (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12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홍성기 (홍천) 도의원	12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최승준 정선군수·심재섭 영월군의장·김기철 도의회...	12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박호균 도의원	12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강정호 (속초·왼쪽)·진종호 (양양) 도의원	12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박대현 (화천) 도의원	12
江原日報	01면	여야, 道 국감서 전·현 지사 겨냥 공방전	13
江原日報	03면	국감 질의 응답하는 김진태 지사	14
江原日報	03면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생활문제 행안부와 상의해 개선..."	14
江原日報	03면	권성동 의원 “최문순 전임 도정 잘못 도려내야”	15
江原日報	03면	“산불대책기간 골프 연습” VS “악의적 보도 단호히 대처”	16
江原日報	03면	김 지사 ‘반도체·미래차’ 현안 지원 건의	16

江原日報	04면	"플라이강원 20억 지원한 양양군 엄정 수사 필요"	17
강원도민일보	04면	북한 선박 어민이 먼저 발견...동해 NLL 경계 실패 논란	17
江原日報	05면	강원도 뚫렸다 ... 양구농장 럼피스킨병 확진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국감 지적 도 업무개선 계기로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벽오지 통신 사각지대 없애야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현역 의원 부정평가 38.3%, 지역 국회의원 분발을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불법 무기류 반입·유통 막을 근본 대책 시급하다	22

“스포츠로 하나 된 도민·행복한 추억 선물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께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체육회는 24일 도청 광장 앞에서 2022 ‘제19회 항저우 AG 강원특별자치도 입상선수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도 소속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9개를 획득했다. ▶관련기사 23면

수영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 최동열(이상 강원자치도청), 김영범(강원체고), 고하루(강원체중), 축구 이광연(강원FC), 핸드볼 김민서, 김보은, 강은서, 박재영(이상 삼척시청), 펜싱 이혜인(강원자치도청), 태권도 강완진(홍천군청), 용선 주희, 육상 박원진(이상 속초시청), 유도 박은송, 사격 김란아(이상 동해시청), 세팍타크로 서승범, 이문주(이상 도체육회) 등 도 소속 메달리스트 19명이 모두 참석했다.

선수들은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부터 도청

도청 광장서 제19회 항저우 AG 도 입상선수 환영행사 열려
황선우·김우민·이광연·김민서 등 메달리스트 참석 성과 자축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강원특별자치도 입상선수 환영행사가 24일 도청 앞 광장에서 내빈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앞 광장까지 퍼레이드를 펼쳤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김상하 도시·군체육회장협의회장 등

이 무대 앞에서 선수들을 맞이하며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선수들은 호명을 받으며 1명씩 무대에 등장했고, 시민들은 함성으로 영웅들을 맞이했다.

선수 소개 후 강원도립무용단의 공

연 ‘강호’, 춘천교대부설초교 합창단 ‘달별술중창단’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공연이 마무리된 뒤 김진태 지사, 권혁열 의장, 양희구 회장이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전달했다.

김진태 지사는 “우리 선수들이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모두 잘했다. 이제 남은 것은 파리 올림픽”이라며 “도민들이 한마음이 되고 신나는 일이 스포츠인 만큼 체육 예산을 올려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도민들께서 AG 기간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선수들이 벅찬 감동을 줬다. 내년 올림픽에서도 꼭 금메달을 목에 걸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양희구 회장은 “이번 AG에서 도 소속·출신 선수들이 한국 전체 메달의 24%를 책임졌다. 선수들이 내년 파리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순찬기자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경기대회 강원특별자치도 입상선수 환영행사

2023.10.24.(화)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광장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경기대회 강원특별자치도 입상선수 환영행사가 24일 도청 앞 광장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신영재 흥천군수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태 도지사와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영

“롤모델 황선우… 그냥 좋다”

강원체중 평영 고하루, 황선우 지목
김 지사·황 선수 티키타카 도민 웃음
“황 선수 말 잘해 국감 나가도 될 것”

항저우에서 빛난 ‘강원체육영웅’들이 도민들의 환호 속에서 금의환향했다.

강원체육의 위상을 높이 올린 선수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24일 오후 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 자리에는 금메달 2개를 포함해 6개 메달을 딴 황선우와 아시안게임 3관왕 김우민, 한국 접영 최강자 양재훈, 평영 최강자 최동열,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 금메달이혜인(이상 강원특별자치도청),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3연패의 위업에 기여한 수문장 이광연(강원FC) 등 선수 1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거리행진, 축하공연, 사진촬영 등으로 도민과 함께 소통했다.

도는 도청 소속으로 메달을 따낸 선수들에게 특별훈련비로 총 9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도체육회도 입상한 선수 18명에게 총 870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상식 이후 사회자가 돼 선수들을 직접 인

터뷰하는 등 ‘분위기메이커’의 역할을 도맡기도 했다.

황선우는 ‘식중독으로 5kg이나 빠졌는데 진짜냐’는 질문에 “맞다. 살이 많이 빠져서 전국체전 때 고생했는데 도청을 대표로 나온 대회이다 보니 5관왕과 함께 3회 연속 MVP를 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말을 너무 잘한다”며 “국정감사에 나가도 될 것 같다”고 말해 도민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유일한 중학생 선수이자 평영이 주종목인 고하루(강원체중 3년)는 ‘롤모델이 누구냐’는 질문에 주종목이 다름에도 “황선우”라고 답했다.

특히 좋아하는 이유를 묻자 “그냥(좋다)”이라고 말하며 수줍게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을 물론이고 체전에서도 활약했다. 이제 남은 것은 파리올림픽이다. 그곳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은 “도민들이 대회 기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선수들이 선전할 때마다 도의 명예를 드높여줘 벅찬 감동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양희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은 “한국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3위와 함께 190개의 메달을 땀는데, 도 소속 선수와 도 출신 선수들이 전체 24%를 차지하는 47개의 메달을 얻어냈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체육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예섭

江原日報

2023 10 25 ()

/ 07

..... / 도의회·원주시의회·출자출연기관 동참 /

‘강원형 클러스터’ 조성 공동 대응 다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등 참석
사업체 이전·인력 양성에 협력

202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주시의회 의원과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략에 힘을 보태고 있는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포럼에는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과 박윤미, 류인출, 원제용, 박대현 도의원이 참석했다.

김기홍 부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1시간 이내 수도권에 있고, 바다가 있고 통일 시대 북쪽과 연결된 최전방에 위치해 사업적으로 최고의 지역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반도체가 현재 산업의 쌀이라면 미래에는 공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반도체를 강원도와 원주시가 미래먹거리로 정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도의회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윤미 의원은 “수도권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이 이전해야 하고 인력 양성도 해야 한다. 반도체산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앞으로 지켜보겠다”면서 “이번 반도체포럼이 강원자치도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용 원주시의장과 심영미, 차은숙, 조창휘, 문정환, 이상길, 이병규, 홍기상, 원용대 시의원도 포럼에 참여했다.

이재용 시의장은 “반도체 산업 불모지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길을 되짚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맡은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권오광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도 참석했다.

원주=최기영기자 answer07@

2023 10 25 ()

江原日報

“강원자치도 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최적지”

01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

국내의 반도체 기업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략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을 집중 논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강원일보는 24일 호텔 인터불고 원주에서 ‘강원 반도체를 시작하다-202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2·7·11면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주시의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전자공학회 등이 후원했다. 특히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SK하이닉스, 인텔, DB하이텍 등 국내외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전자공학회, 대학 등 산·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향후 산업 육성 전략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로 이미 성과가 나오고 정부도 국비로 지원 중”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기업 유치, 부지 조성 등 강원자치도의 반도체 육성 전략을 폭넓게 논의하고 응원이 모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이 24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박정하 국회의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박승선기자

정부 관계자-산·학 전문가들 “강원도 산업 잠재력 높다” 평가
원주 중심 ‘강원형 반도체’ 개척에 자신감 ... 육성 가속도 기대
오늘 둘째 날 ‘테스트베드·인력양성’ 전문가 세션 발표 이어져

원강수 원주시장은 “강원 반도체 포럼을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추구하는 클러스터에 가속도가 한층 불으리라 확신한다”며 “기업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원주 중심의 강원형 반도체 산업을 개척하고 일구는 데 큰 영양분이 됐다”고 이번 포럼에 큰 기대를 보였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국무회의를 하다 보면 항상

반도체가 화두가 된다. 과기부는 AI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과 같은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정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하겠다. 많은 기업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에 오셔서 꿈과 산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반도체 포

럼을 열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송기현 국회의원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산업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반도체 포럼은 앞으로도 치열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

주시의 산업 육성 전략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 둘째 날인 25일은 반도체 테스트베드 분야, 인력 양성, 차세대 반도체 등에 대한 전문가, 산업계 전문가의 세션 발표가 이어진다. 강원지역 대학생, 연구원들의 연구포스터 발표, 삼성전자·아마존 재직자들과 함께하는 산내외의 대화시간도 진행된다. 신형철·최기영·김현이기자

2023 10 25 ()

/ 02

江原日報

“디지털 의료 거점 원주 AI 반도체산업 성장 잠재력 높아”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참석

정부 정책 소개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 경쟁력 강조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특히 원주는 디지털 의료 산업의 거점이다.”

202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에 참여한 박윤규 과기부 장관·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의 AI·의료 반도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정부 입장에서 반도체 시장의 전체가 언제 개편될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항상 화두”라며 “특히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등이 반도체 산업에 적극 투자하는 점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부는 반도체 산업 활성화, 그중에서도 AI 반도체와 관련 R·D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도체 포럼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전에 한덕수 총리를 모시고 ERP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했는데 지역 기업들의 성공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인공지능 반도체 정책을 소개한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반드시 정책의 최고 흐름이 어떤가를 봐야 한다”면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뉴욕 구상을 밝혔다. 인공지능 규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미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저작권 학습용 데이터를 돌렸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정부의 목표는 디지털 모범국가라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우리 정부는 세계적으로 자신감이 있다. 전제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첫 시도는 디지털 인재 100만 완성이라고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AI 일상화를 추진 중이다. 정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능력, 인재, 반도체”라고 밝혔다.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비롯한 지역의 산업 경쟁력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정부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핵심인재 양성,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원주는 국내 디지털 의료산업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해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윤규 과기부 장관·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박정규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유민희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 권명중 연세대 미래캠퍼스 부총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 권오광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장,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이상기 DB하이텍 부사장, 윤인호 인텔 디렉터, 심대용 SK하이닉스 전 부사장(무순) 등이 참석했다.

원주=최기영·김현이기자



○24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린 202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에서 강도현 과기부 장관·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인공지능 반도체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원주=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0 25 ()

14



김영숙(왼쪽) 황성군 의장·한창수도의회 부의장은 25일 오전 9시 30분 정선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10 25 ()

2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가 23, 24일 이틀간 태화강 국가정원, 철새홍보관 등의 현지 시찰을 통해 강원자치도 수질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울산 태화강 친환경 생태공간 벤치마킹”

도의회 치수연구회 현지시찰
도내 수질개선 등 정책 활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가 지난 23~24일 울산광역시 태화강 일대를 현지 시찰하며 강원자치도 수질관리 방안을 고심했다. 치수연구회는 이틀간 태화강 국가정원, 철새홍보관 등지를 방문, 수질 개선과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사례를 수집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울산 태화

강은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급격한 수질오염을 겪은 후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통해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거듭났다. 상·하류 모두 1등급 수질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징적인 지역이다. 연구회는 도내 수질 개선을 위한 연구와 폐광지역 오염 실태 파악,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대비 방안, 내수면 보호를 위한 유해어종 지정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2023 10 24 ()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 현지시찰에 나서

정찬범 기자

10. 23. ~ 10. 24.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철새홍보관 등지 방문
수질개선,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등 연구자료 수집 목적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수질관리 벤치마킹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인 '치수연구회'에서 울산 태화강 일대로 현지시찰을 추진하였다.

치수연구회는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 중 하나로, 강원특별자치도 수질개선을 위한 자체 추진사업 분석과 연구, 폐광지역 오염실태 파악, 지역하천 정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대비 방안, 내수면 보호를 위한 유해어종 지정 등의 활동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영월2)을 필두로 의원 13명이 모여 결성한 연구회이다.



특히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담당하는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물 관리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수치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을 발주하고, 강원연구원에도 관련 정책과제를 의뢰했다.

울산 태화강은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급격한 수질오염을 겪은 후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통해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다시 거듭나 상·하류 모두 1등급 수질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맑은 물'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치수연구회에서는 이번 현지시찰을 통해 태화강의 수질관리 모범 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추후 강원특별자치도 수질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한 물 사용 권리 확보에 힘을 예정이다.

정찬범 기자 gwnews@hanmail.net

江原日報

2023 10 25 ()

16



미수복김화군민회 망향제 미수복김화군민회 망향제가 24일 근남면 모기동산에서 박경우 철원부군수, 엄기호 도의원, 한종문 철원군의회 부의장, 배인선 미수복김화군민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25 ()

17



철원 미수복 김화군민회 망향제 미수복 김화군민회 망향제가 24일 철원군 근남면 모기동산에서 박경우 철원부군수, 엄기호 도의원, 한종문 철원군부의장과 김화군민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25 ()

20

소양강배 춘천파크골프대회 선수 300여명 친목·화합 다져

본지 주최 17개 시군 선수 열전
춘천시 내년 3개 경기장 착공
“올해 말 1곳 추가 시설 확대”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열린 ‘제1회 소양강배 춘천파크골프대회’가 24일 서면파크골프장에서 축제 분위기에 막을 내렸다.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하고 춘천시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며 춘천시, 춘천시의회, 춘천시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파크골프협회, 춘천시장애인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파크골프를 통한 강원도민의 친선과 화합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이날 열린 개회식은 김중석 강원도민일보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허영 국회의원, 이강군 춘천시체육회장,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홍대호 도파크골프협회장, 양영석 시파크골프협회장과 17개 시·군 총 300여명의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회 소양강배 춘천파크골프대회가 24일 서면파크골프장에서 17개 시·군 총 300여명의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과 내빈들이 시타를 하고 있다.

운데 열렸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회장은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에 따르면 이번 대회가 열리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강마을로 꼽힌다. 또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무려 200명이 넘는 박사를 배출한 ‘박사마을’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기가 좋은 곳에서 즐기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최근 파크골프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시설이 감당 못하고 있다”며 “춘천은 현재 18홀 경기장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말에 한 개가 생긴다. 내년에는 3개를 착공한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춘천에 오셔서 넉넉하게 즐기고 경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춘천시의장은 “이곳에 박사

들이 많이 태어난 이유는 건너다보이는 대동산 때문이다. 대동산에서 떠오르는 해가 가장 먼저 비추는 곳이 이곳이다”라며 “이런 기운을 받아 선수단 여러분이 이번 대회를 통해 파크골프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기억을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호 도파크골프협회장은 “처음 열리게 된 이번 대회에 대해 감개무량

하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시파크골프협회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선수단 여러분 모두 열전을 펼치고 유종의미를 거두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내년부터 춘천에 착공하는 3개 경기장이 차질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 서뒀받침하겠다”며 “내년 초쯤 서면대교가 착공되면 이 경기장도 오기 더 편해진다.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으로는 개인전 1~5위에게 트로피와 함께 시상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이 차등 지급됐다. 장려상(6~10위)에는 트로피와 함께 시상금 10만원을 지급했다. 단체인 1~3위에게 트로피와 함께 시상금 150만원, 90만원, 7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4위는 시상금 40만원, 5위는 시상금 30만원이 지급됐다. 장려상(5~10)에는 시상금 20만원을 지급했다.

심예섭 yes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10 25 ()

22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하반기 제2차 정기회가 24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열린 가운데 심영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도의회

江原日報

2023 10 25 ()

21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하반기 제2차 정기회가 24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심영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10 24 ()

강원타임즈**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 10월25일 개최**

"오후 1시부터 양양읍 승격 44주년 기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담아"



【강원타임즈】 김장희 기자 =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가 2023년 10월25일(수) 오후 1시30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다.

양양읍 승격 44주년을 기념하고 읍민들의 결속을 도모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 기념식과 함께 문화행사를 통해 읍민 화합의 장으로서 성대하게 치러진다.

양양읍민 한마당큰잔치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김시범·김순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김진하 군수, 오세만 양양군의회의장 등 군의원, 진종호 도의원, 각급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이에따라 1부 기념식에서 양양문화원 취타대 ‘사물놀이’, (사)한국국악협회 양양지부 ‘민요’ 등 지역공연팀의 공연과 ‘양양읍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동영상 시청, 김시범 양양읍이장협의회장과 김순희 양양읍새마을부녀회장이 개막선언을 한다.

이어 시상식에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조산리 김부웅씨에게 공로패, 지역사회 봉사 부문에서 양희성·장금자 부부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서성철 양양읍장의 기념사와 김진하 양양군수와 오세만 양양군의회의 의장, 진종호 도의원의 축사로 1부 행사를 마무리한다.

또 2부 행사에서 초청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 등으로 행사장을 더욱 흥겹게 장식한다.

서성철 양양읍장은 “양양읍은 양양군 6개 읍면 중 유일한 읍이자 군민 절반이 거주하는 행정·교통·산업의 중심지”라며, “오늘 이 자리가 읍민들의 화합 속에 자긍심을 더욱 공고히 하는 단결의 장이 되고, 나아가 양양군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양읍민의 날 행사는 1979년 5월1일 읍으로의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5월1일 진행해 왔으며, 바쁜 농사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 2018년부터 10월 중에 추진하고 있다.

江原日報

2023 10 25 ()

19

과거에는 자녀들 주위에
서 모든 일에 간섭하는 부
모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일컬었다. 예전에는 헬리콥
터처럼 위에서 지켜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개
입했다면 요즘은 자녀의 목

표 달성 과정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
는 것들은 모조리 밀어버린다는 뜻의
‘불도저 부모’로 진화했다고 한다.

‘학부모’의 사전적 의미는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이다. 아동복지법
에서 보호자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을 책무로 명시했다. 그런 의미에
서 보호자로서 아동

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잉보호가 된다면

도리어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 발달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 전국초등학교노동조합 설문
조사에서 초등교사 99.2%가 교권침
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유형
으로는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
에 대한 불응·무시·반항, 학부모의
폭언·폭행, 학생의 폭언·폭행 순이
었다. 그만큼 학부모가 자녀의 생활
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8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
직 중이던 젊은 신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많은 교사가 공
감을 느꼈고, 그에 따라 ‘공교육 멈춤

강원포럼

박길선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의 날’이라는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
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학부모
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극단
적 선택 사례가 재조명되었다. 연이
은 언론보도로 인해 여론의 관심은
해당 학부모의 신상 공개로 이어져
사적제재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
정이다.

국회와 교육부는 부랴부랴 교권보

교권보호 열쇠 학부모에 있다

호 대책을 내놓았다. 국회에서는 교
권보호 4법이라고 불리는 초·중등교
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
지위법 등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않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전문적 판단
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
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을
명시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학
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학생이
난동을 부리는 경우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근본
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
다. 학부모의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어렸을 적 학
교에서 선생님께 혼쫓난 것
을 부모님께 고자질하면 부
모님은 내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으시고 매번 선생님 편을
드셨다. 어린 마음에 그것이 무척이
나 서운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선
생님의 교육 방식에 대한 믿음이 있
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과거에 선
생님이라는 직업은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난 지식 전달자뿐만 아니라 교육
자로서의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을 공공 교육
서비스 제공자쯤으
로 여기는 듯한 풍조
가 있는 듯하다. 우
리나라의 교사는 교

사임용시험을 합격한, 교사로서의 충
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학습적
재량은 보장받아야 하며, 전문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교사와 학부모
는 미래 세대를 양성한다는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중요성을 인식
해야 한다.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교사가 양질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내 아
이가 받는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이 행
복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25 ()



16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은 25일 오

전 9시 고성군 용암1·2리에서 열리는 고성군정부비축미수매현장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25 ()



14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25일 오전 10시 홍천농촌

문화터미널에서 열리는 '홍천군 시군역량 강화산업완료지구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한마당'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25 ()



15
석한다.



최승준(위 왼쪽) 정선군수·심재섭(위 오른쪽) 영월군의장·김기철(정선·아래 왼쪽)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윤길로(영월) 도의원은 25일 오전 9시 30분 정선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강원의회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

강원도민일보

2023 10 25 ()



12
박호균 도의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강릉학산오

독떼기전수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강릉학산오독떼기전승발표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25 ()

16

대회입상자 시상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25 ()



17
박대현(화천) 도의원은 25일 오전 9시 30분 정선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제9회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한다.



강정호(속초·왼쪽)·진종호(양양) 도의원은 25일 오후 2시 쏘비치양양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48회 강원축산경진

江原日報

2023 10 25 ()

01

여야, 道 국감서 전·현 지사 겨냥 공방전

5년 만의 현지 감사서 격돌

與 최문순 도정 추진 사업 저격
野 김 지사 이념 논쟁 중단 촉구
양양군 플라이강원 의혹도 도마 위

혈세 낭비 논란을 일으킨 ‘양양군의 플라이강원 20억원 지원’이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경찰청이 주민의 고발을 접수해 양양군의 배임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의원들은 엄정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는 강원지사의 이념 논란과 최문순 전임 도정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3·4면

5년 만에 열린 강원자치도 현지 국감은 대체적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처음으로 피감기관장으로 참여한 김진태 지사도 수용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김진태 강원지사의 이념 논란과 최문순 전임 도정이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야권에서는 강원연구원의 ‘극우인사’ 강사 초청을 꼬집으면서 김 지사를 향해 이념 논쟁을 그만두라고 공격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연구원 아침공부포럼에 극우 인사들이 강사로 나섰다”며 “도지사

의 극우적 신념을 뒷받침해 줄 ‘자기편’만 기용해서 지역 발전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지면서 현진권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도(道)로 이념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강사들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극우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현진권 원장은 국회 도서관장도 역임했다. 이념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편향된 인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 입장에서 유의하라고 당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문순 전임 도정에서 추진한 사업을 따지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전임 도정에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할값에 매각했다.

감정가보다 낮게 매도하면서 도민 혈세가 2,500억원이 날아갔다”며 “전임 도정 지우기로 이미지가 훼손되더라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강릉) 의원도 알펜시아 매각, 레고랜드 조성,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개발사업 문제를 열거하며 “김 지사가 감사를 안 한다면 직무유기”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밖에 강원도 국감에서는 산불 이재민 거주 문제, 소방공무원 급식,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검사, 동계 청소년올림픽 지원, 화력발전소 설립에 따른 공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산불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도청에 이은 강원경찰청 국감에서는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가 있었다. 신하림·이하늘기자

2023 10 25 ()

03

江原日報



국감 질의 응답하는 김진태 지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김진태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2023 10 25 ()

03

江原日報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생활문제 행안부와 상의해 개선”

강원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재난·재해 정책 취약 질타 쏟아져
소방공무원 지원 부족·진화용 고정익 항공기 필요성 제기
원격진료·폐광지 카지노 특례 등 특별자치도 관련 제안도

24일 열린 도 국정감사에서는 재난·재해 취약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질타와 제안이 쏟아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향후 방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취약계층 위한 정책 주문=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은 산불 이재민이 폭염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본보 보도(본보 8월4일자 5면)를 인용하며 “새만금 잼버리 사태 당시 외국인은 쾌적한 숙소에 거주했는데, 왜 우리 국민은 재해 발생시 강당에서 텐트를 치고 살다가 임시조립주택에 가느냐”며 “행안부와 상의해 지점을 개정하라”고 했다.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은 민주당 오영환(경기 의정부 서시갑) 의원은 “119안전센터 77곳 중 절반이 넘는 곳에 급식 관련 강원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화용 고정익 항공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자치도 출범 따른 제안=민주당 송재호(제주 서귀포) 의원은 “강원에 산지가 많아 원격 진료 관련 특례나 폐광지역 카지노 관련 특례 등의 발목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지난해 김진태 지사가 도지사가 되기 전 ‘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고 민주당이 숭가락 앉으려고 하는 것은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이 생각은 버리고 하나 된 강원정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그런 말한 지역이 안 날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지역 특화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대폭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라”고 조언했다.

■“오염수·발전소 설립 대처 필요”=민주당 권인숙(비례) 의원은 “도가 원래 주 2회 하던 방사능 검사를 7일로 늘리고 있다는데 보여주기가 아닌가”라며 “하루 위판장 1곳에서 딱 1종, 1kg만 검사하고 그마저도 머리는 떼고 한다.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기본소득당 윤혜인(비례) 의원은 신규 화력발전소 4기가 가동되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전기는 수도권으로 가고 미세먼지는 도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질었다. 김 지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향후 신재생 에너지를 원료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 10 25 ()

03

권성동 의원 “최문순 전임 도정 잘못 도려내야”

“알펜시아·레고랜드 엄청난 빚”
강원자치도 고발 나설 것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2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강원도 국정감사에 나섰다. 행안위 소속 의원 중 유일한 도 출신인 권 의원은 이날 최문순 전임 도정 추진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문순 전임 도정이 추진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레고랜드 조성으로 강원도에 엄청난 빚을 안겼다”며 “이 부분에 대해 김진태 지사가 통합 차원에서 감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전임 지사의 법인카드 유용건과 관련, 경찰에 고발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로서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강원도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증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발본색원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4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열린 가운데 권성동(국민의힘·강릉)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동해안 권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도 “최문순 전 지사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해서 적극 지원했지만 8년간 단 한 곳의 기업체도 유치하지 못했다. 도민의 혈세만 낭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년 1월19일에 개막하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예산 집행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봐 줄 것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세계잼버리대회를 분석해보니 중앙정부에서 예산 교부를 했지만 전북도에서 집행되지 않았

다. 집행률이 50%도 안됐다”며 “그래서 시설과 운영이 미흡했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내년 1월에 열리는데 예산집행률이 50%밖에 안된다. 매일 체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권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중점된 규제를 합리화하고 강원자치도 특례도 늘려가야 한다”며 “교육·환경·폐광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입법도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3 10 25 ()

03

“산불대책기간 골프 연습”

VS

“악의적 보도 단호히 대처”

여야 김 지사 논란 설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산불특별대책기간 중 골프연습’ 논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국회의원은 강원도 국감에서 “산불특별대책기간 꼭 골프연습을 했어야 했느냐”며 김진태 지사가 모 방송사 보도와 관련해 취재기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을 두고 취하할 의사가 없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3월30일 연습은 사과했는데, (해당 방송에 보도된) 18일 연습은 아니라는 입장은 구차하다”며 “고소를 꼭 하셔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골프장 라운딩과 연습장은 다른 것”이라며 “(산불 발생 전인) 3월 18일 오전 7시에 체력 관리 차원에서 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언론에서 이를 악의적·의도적으로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다”며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시·도지사는 신문법 등에 의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지사는 “3월30일 근무시간이 끝나기 30분 전에 연습장에 간 것에 대해선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했다”며 “그러나 추가 보도로 3월18일에도 산불 중에 골프를 쳤다고 보도했는데 그날은 토요일 오전 7시 연습을 한 것이고, 산불은 오후에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고소 취하 의사와 관련해선 “언론 보도 이후 발생하는 피해가 다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 자연인으로서의 구제 차원”이라며 취하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하늘기자

2023 10 25 ()

03

江原日報

김 지사 ‘반도체·미래차’ 현안 지원 건의

의원 질의에 치분한 대응 평가
“강원특별법 개정안 도움 부탁”

강원자치도는 24일 5년 만에 열린 도정 현지 국감에서 입법 지원이 필요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도는

이날 강원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국비 93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43억원)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20억원), 의료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30억원) 등이다.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을 위한 전폭적 관심도 당부했다.

이날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처음 피감기관장으로 나선 김진태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주요 공격수로 불렸던 모습과 다르게 의원들의 질의에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강원특별법 다음 개정안을 준비하면 행안위 위원님들 방으로 찾아가 뵙고 싶다. 잘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2023 10 25 ()

江原日報

04

“플라이강원 20억 지원한 양양군 엄정 수사 필요”



강원경찰청 국감

“현직 군수가 고발당한 사안
봐주기식 수사 없어야” 지적
경찰청장 “사안 중대 직접 수사”
경찰관 마약사건 연루도 질타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양양군의 플라이강원 20억원 지원’에 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의원은 본보 보도를 인용하며 “양양군이 위법적인 행태로 자본 잠식 상태인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양양군민의 혈세가 빠져나간 사안인 만큼 군수가 권한을 남용한 부분은 없는 지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직 군수가 고발당한 사안이라고 해서 ‘봐주기식 수사’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이 사건은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접수됐다”가 속초경찰서로 넘어왔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원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용산에서 추락해 사망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마약 투약 정황과 관련, 인사 관리에 보다 엄격

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경찰관의 마약 투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정 주기를 갖고 일괄적으로 마약 검사를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도 “해당 경찰관의 마약 투약 시점이 입직 전이었다면 경찰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후였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은 “정부는 강원도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었던 고(故) 양화동씨가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수사가 원인일 가능성을 추궁했다.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고인의 사망은 유감이지만, 자체 조사 결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신하림기자 peace@



◇24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도형 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25 ()

04

북한 선박 어민이 먼저 발견...동해 NLL 경계 실패 논란

NLL·통과·민간어선 선제 신고
군·해경 감시태세 허점 도마 위
합참, 의심·추적 초동 대응 신속
소형 목선 레이더 미포착 해명

24일 새벽 북한 주민 4명이 승선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왔으나 우리 어선이 발견해 신고할 때까지 군(軍) 당국이 북한 선박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경계 실패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동해상의 ‘의심선박’을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로 포착하고 오전 5시 30분쯤부터 작전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경계 실패 논란 차단을 나섰다.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와 TOD로 포착된 해당 선박은 어선 신호가 없어 의심 선박으로 추적하고 있었다”며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소형 목선 목선을 찾지 못했고, 이런 와중에 민간어선이 북한배를 신고했다”고 설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군 당국이 소형 목선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했다.

군 당국 설명대로라면 초동 식별은 발빠르게 한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NLL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군과 해경의 해상·해안감시 태세는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군당국은 오전 4시 이전부터 NLL 인근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포착하고 동해상에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민간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

해당 선박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목선이 발견된 속초 동쪽 해상 은 NLL에서 남쪽으로 약 40~50km 떨어진 지점이다.

군은 이번 북한 목선 귀순과는 별개로 이른 새벽부터 NLL 인근에서 북한군 동향이 포착돼 동해상에 초계기와 함정을 파견해둔 상태였지만 목선 가까이로 이동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오전 6시 30분쯤 열상감시 장비에 목선의 형상이 식별되고, 7시 10분 해경에 우리 어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문제의 배가 북에서 내려온 목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날 해군은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좁아 경계·감시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km가 넘어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힘들다”

강원도 귀순일지

- ▶ 2012년 10월 2일
22사단으로 넘어온 북한군이 GP 창문 두드리고 ‘노크귀순’
- ▶ 2015년 6월 15일
철원 GP 인근에서 하룻밤 간 뒤 발견 ‘속박귀순’
- ▶ 2019년 6월 15일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일항 ‘정박귀순’
- ▶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민 2명 동해상으로 귀순 강제복송
- ▶ 2020년 11월 4일
22사단 철책 ‘일책 귀순’
- ▶ 2021년 2월 16일
고성 통일원대 인근 해안으로 해점귀순
- ▶ 2023년 10월 24일
북한주민 4명 동해상 속초 인근 귀순

며 “더욱이 먼 바다에 있는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고 바다에 소형 표적이 출몰할 때마다 군자산을 파견하는 건 가능하지 않으며 전력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15일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이 삼척항 외항 방파제를 지나 부두까지 다가와 정박했고 인근에 있던 민간인이 112에 신고해 발견됐으며, 당시 군당국은 이 어선의 동해 NLL 월선을 포착하지 못했다. 박주석



◇양구에서 강원자치도 지역 내 첫 렘피스킨병이 발생한 24일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해당 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강원도 뚫렸다... 양구농장 렘피스킨병 확진

도내 농가·종사자 일시 이동중지
해당 농장 소 29마리 긴급 살처분
인근 5천여마리 백신 접종 나서

양구에서 강원지역 내 첫 렘피스킨병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국내 최초 발생 이후 나흘 만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확진 사례가 발견되면서, 도내 한우농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구군에 따르면 24일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소 1마리가 렘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가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도방역당국에 '수의사 진료 중 소 1마리가 고열과 피부 결절 증상을 보인다'고 신고했다.

도 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해당 농장에 방역 인력을 투입해 초동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 29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과 매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생 농장 반경 10

km 이내 방역대의 127개 농가 5,058마리에 대해서도 5일 이내 긴급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소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4일 오후 1시부터 25일 오후 1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도내 첫 확진 소식에 지역 축산 농가들은 추가 감염으로 인한 경영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남궁국석 전국한우협회 양구지부장은 "국내에서는 처음 발병된 병이다 보니 농가들이 방역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사료값 상승과 한우값 하락으로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엇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렘피스킨병은 모기 등 매개체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구제역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하며, 잠복기가 최대 28일에 달해 도 전역에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 방대본 관계자는 "침집과 리 등 흡혈 곤충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 및 철저한 소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가축 전염병은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관건으로, 더 이상의 확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히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오미·정래석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25 ()

/ 19

국감 지적 도 업무개선 계기로

-기업 전무, 편향 운영, 낮은 집행률 보완 능동적이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굵직한 정책 추진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과 석달도 남지 않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800억 원대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 불과하며, 강원연구원은 이념편향 인사의 잇따른 초청강연으로 이승만연구소가 돼가고 있다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도는 국감에서 거론된 문제점을 한번 더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올림픽 관련 모든 예산을 교부했는데 834억원 중 집행률은 5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설과 운영 미흡 실태를 언급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매일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동해시에 자리잡고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개청 이후 8년 동안 기업유치가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전임 정부 핑계가 아닌 김 지사가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이후 이념 편향 강연이 13차례나 개최된 점 등을 언급하며 강원도정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고수익을 챙겼다는 등의 발언을 해온 초청강사로 부터 강원도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따져물으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특

별자치도 출범으로 갖가지 현안이 대두된 상태에서 강원발전의 싱크탱크인 연구원 기능에 이념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날 대한석탄공사 국감에서는 태백 및 삼척 탄광 폐쇄를 촉진하며 자본잠식 적자상태로 만드는 데 치명적인 손실을 입힌 2011년 이명박 정부 때의 몽골탄광 투자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청래 국회의원은 2011년 283억을 투입한 몽골 호트르샤나가 탄광 투자금 미회수 원인 및 대책을 따졌습니다. 석탄 품질이 낮은데다가 2016년부터는 생산마저 중단됐으며 22년 평가결과 매각가치는 8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원경환 사장은 400여억원대 매각 추진을 답변으로 내놓았으나 신뢰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공은 탄광업에 종사하는 도민 생계와 직결된 공공기관입니다. 석탄공사의 잘못된 해외 투자로 수백억원대 낭비 및 국내 탄광 폐쇄를 촉진해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피해를 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의 비합리적 행태는 전국 뉴스가 됐습니다. 도 출신 국회의원은 소속위원회 소관은 물론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감사에 집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25 ()

/ 19

벽오지 통신 사각지대 없애야

-휴대전화 불통 '음영지역' 생활 불편 안전 위협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99%를 넘어 100%에 이르면서 휴대전화는 개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통신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개인이 휴대전화를 갖게 되면서 집 전화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는 유지되고 있지만, 집 전화는 1000만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무선 전화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내 일부 벽오지는 휴대전화 불통 지역으로 남아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통화편의는 고사하고 사고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당국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통신전파가 닿지 않는 '음영지역'은 춘천시 동면에 위치한 신이리와 품안리가 대표적입니다. 34가구 49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은 외부와 연결하는 육로도 없어 유일한 진입로는 배뿐입니다. 여기에 통신전파까지 제대로 닿지 않아 시민들은 외부와 단절되기 일쑤입니다. 해당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전화 통화를 위해선 배를 타고 10여분 나가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으로 인해 마을에서 사고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주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 통신전파가 닿지 않아 신고가 지연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지난해 9월 소양호에서 배를 몰던 한 남성이 나무와 부딪힌 후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지점이 무선전화 불통 지역이어서 배를 타고 나와 신고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조업을 목격하는 일도 잦지만 당장 전화로 신고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 마을은 야생동물이 전화선을 끊는 경우가 빈번해 유선전화 불통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춘천 음영지역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용호 의원이 휴대전화 음성통화가 불가한 음영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촉구했습니다.

통신 불통에 따른 불편은 비단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벽오지 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에서도 건물 지하층 등에서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등 관계당국과 통신사는 음영지역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영지역이 또 다른 지역 불균형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10 25 ()

/ 19

현역 의원 부정평가 38.3%, 지역 국회의원 분발을

강원일보가 창간 7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16~17일 강원지역 만 18세 이상 807명을 대상으로 정치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강원인들은 오차 범위 내이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긍정평가가 앞섰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및 민원해결 등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3.1%가 '잘한다'고 답했다.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8.3%였다.

이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등과 같은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이 있다. 강원인들은 '만약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현역 국회의원과 경쟁 인물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7.7%가 '다른 인물을 뽑겠다'고 답한 것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은 더 분발해야 한다.

민심이 현실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의 대민 접촉에 뭔가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조짐을 읽게 된다. 더욱이 이 같은 변화가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을 6개월 앞둔 때 드러나고 있다는 측면도 새겨볼 일이다.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불만족과 변화 욕구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지역 정치권이 그동안 강원인의 의사를 살피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은 강원인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지고 지역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적신호로 봐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더 역동적으로 뛰어야 한다. 소속 정당과 정파가 다르다 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본보 창간 78주년 맞아 807명 대상 여론조사

내일 투표 땀 47.7% 현역 아닌 다른 사람 뽑아

소속 정당·정파 따지지 말고 현안 해결 매진

강원인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인들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사람들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소속 정당의 당리와 당락을 따질 일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익과 강원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나가야 한다. 이른바 초당적 협력으로 중앙 정치권을 설득시키고 움직여 강원인의 뜻을 관철시켜 나갈 때 내년 총선에서 득표로 연결된다. 지원이 취약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는 소신을 갖고 일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며 에너지인 것이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본보가 창간 78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버릴 것은 버릴 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江原日報

2023 10 25 ()

/ 19

불법 무기류 반입·유통 막을 근본 대책 시급하다

불법 무기류 밀반입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불법 무기류 밀반입은 6,030건으로 2021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총기류 불법 밀반입이 3,363건으로 2년 전(18건)과 비교하면 186배 정도 높다. 강원 지역도 몰래 들여온 총기류로 치안이 위협받고 있다. 강원경찰청이 지난해 자진 신고 기간에 파악한 총기는 8정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3정이 접수됐다. 여기에 단속이 불가능한 사제 총기류의 경우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된다. 사실상 총기 소지자나 주변인의 신고가 아니면 경찰도 일일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총기류는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 원천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민간의 총기 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국가다.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총기 규제가 엄격하다. 하지만 총기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총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확대되고 있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무허가 총기와 실탄 50발을 소지하다 지난 21일 경찰에 체포된 70대의 경우 “미국 거주 당시 지인으로부터 총기를 선물 받았고, 국내

로 오면서 이삿짐과 함께 들여왔다”고 진술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행만의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 인명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아마존 등 온라인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브랜드명만으로도 총기가 검색된다. 총기류에 대한 안전 대책이 미흡할 경우 범죄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이들의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치안 당국은 자칫 총기류에 의한 범죄 가능성에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무기류 반입의 증가를 위협한 징조라고 지적한다. 총기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더 심각하다. 늦기 전에 불법 총기류의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때까지는 지속적인 불법 총기 단속과 함께 대응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불법 무기류의 유통을 차단할 업무 협조가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총기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총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불안감이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